

행안부, 일선 구청 기능 중복 課 통폐합 지침

## “5급 정원 감축되나” 술렁

이명박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광주시내 일선 구청의 일부 과(課)가 통폐합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과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5급(사무관) 정원이 감축될 가능성이 커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8일 광주시 5개 구청에 따르면 지역 자체 조직개편을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가 최근 대국(大局)·대과(大課)주의 원칙을 적용, 한 과당 최소 인원을 20~30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뒤 20명 이하 또는 유사·중복 기능의 과의 경우 통폐합할 것을 각 자자체에 권고했다. 또 업무 주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현재 세분화된 과는 최대한 통합·운영하고, 분할은 예제하도록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조직개편 성과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성과가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각종 교부세 지급을 제한하고 개선권과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일선 지자체의 과 통폐합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동 구청의 경우 통폐합 대상 과는 문화예술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이상 각

13명), 복지사업과, 위생과, 경제과(이상 각 17명), 주민생활지원과, 건축과(이상 각 18명) 등 7개 과이며 서구청은 자치행정과(11명), 재난안전관리과(13명), 건축과(15명),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이상 각 16명), 경제과(17명), 정보홍보실, 복지사업과, 위생과(이상 각 19명) 등 9개 과이다.

남구청은 재난관리과(13명), 위생과, 교통행정과(이상 각 15명), 차량등록과(18명),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공시설과(이상 각 19명) 등 7개 과 ▲북구청은 재난안전관리과(14명), 기업지원과(15명), 주민자치과(16명), 경제정책과, 문화시설관리과(이상 각 17명) 5개 과 ▲광산구청은 감사법무팀(12명), 청소행정팀(15명), 농업지원팀, 공원녹지과(이상 각 16명) 등 4개 과이다.

행안부의 지침대로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5급 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각 자자체는 오는 30일까지 조직개편 계획안을 일단 제출키로 하고 오는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조직개편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서구청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5급 인원 조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정인력 운용문제는 정해지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며 “조만간 5개 구청과 협의해 향후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불법 도박사이트 수억 챙긴 40대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은 8일 인터넷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 억원의 수수료를 쟁진 박모(46)씨를 도박개장(게임진흥산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 ‘마카오’를 개설해 전국에서 가맹점 150곳을 모집한 뒤 손님들에게 300억원대 도박자금을 운용하며 사이버 머니 환전 수수료와 달러비 등의 명목으로 2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쟁긴 혐의다.

박씨는 손님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총전합 ID를 부여해주고 PC방이나 가정집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뒤 달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10.5%를 공제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사이트 접속 IP를 1주일 간격으로 변경하는 등 치밀하게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다른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는지 확인 중이며,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새터민 문화 콘서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새터민 상담지원센터가 마련한 ‘광주시민과 새터민 이 함께 하는 문화 콘서트’가 8일 오후 5시 광주 동구 KT빌딩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평양민속예술단’ 단원들이 북한 예술 공연을 펼치고 있다.

/나영주기자 mnja@kwangju.co.kr

### 전남대 부설 중·고 교사

#### 45세 제한은 차별 행위”

전남대가 부설 중·고교의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45세 이하로 못박은 것은 나이로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광주 J중 김모 교사가 “나이가 45세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업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

며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학교측의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45세를 초과한 교사라도 이미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원임용 시험을 통해 입증된다면 62세 정년까지 계속되는 교원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45세 이하 교사만이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고, 응시 연령 그 자체가 업무수행 자격이나 능력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신안 앞바다 시신 2구 잇따라 발견

신안 앞바다에서 시신 2구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께 신안군 지도읍 점암선착장 인근 바닷가에서 최모(45)씨가 숨진 채 암벽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지나가던 최모(31)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최씨는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의 선원으로 같은 날 오후 6시께 선장에 의해 해경에 실종신고된 상태였다.

해경은 최씨가 잠수복을 입고 몸에 스티로폼 2개를 매단 점 등으로 미뤄 이날 새벽 배에서 빠져나오려고 바닷물에 뛰어들었으나 수영 미숙으로 숨

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40분께에도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6km 해상에서 숨진 한 달이 넘어 보이는 남자의 부패한 시신이 물에 떠 있는 것을 조업 중인 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이 남자도 조업을 하다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실종자 명단 등을 토대로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목포=이상규기자 lsh@

### 더운 초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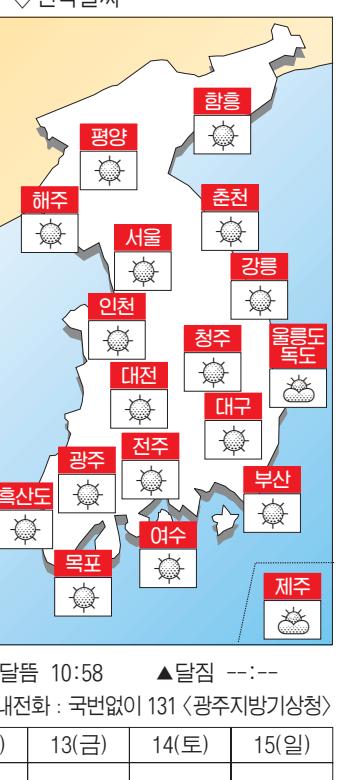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대체로 맑겠다.

광주	구름 조금	18~29°C
여수	구름 조금	18~25°C
완도	구름 조금	19~25°C
구례	구름 조금	17~26°C
해남	구름 조금	16~29°C
장성	구름 조금	16~27°C
홍천	구름 조금	16~27°C
순영도	구름 조금	16~29°C
전주	구름 조금	17~26°C
남원	구름 조금	16~27°C
회성군	구름 조금	16~29°C
화성	구름 조금	15~22°C

### 6월 9일

(음 5월 6일)

◇전국날씨



### “구토 음료수에

#### 광택 물질 함유”

적당한 비만은

정신건강에 좋아”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 성인병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눈총을 받고 ‘비만’이 아주 싫하지만 않다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팀은 전국 20~60세 직장인 8천121명(남 5천231명, 여 2천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신체측정을 거쳐 비만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의 ‘비만’인 여성은 정상체중군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 위험이 30% 낮았다고 8일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표준 및 과체중그룹(BMI 18.5~24.9)에서는 BMI가 1씩 증가 할수록 우울증 위험이 0.7%씩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http://www.kimyoung.co.kr)

#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석사대학원/ 전파대학원/ 외국대학원

매일 공개설명회 10시/ 2시/ 4시/ 6시



김영  
대학편입학원

### 새로운 국가자격증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약 40명

“국가자격증 취득 후에는 국가인증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 교육 과정

자격증 1만 원(간호사, 조무사, 물리치료사, 학생치료사)

자격증 1만 원(사회복지사)

자격증 1만 원(간호사, 조무사, 물리치료사, 학생치료사)

자격증 1만 원(간호사, 조무사, 물리치료사, 학생치료사)